

개별적 존재가 억압된 세계

- 릴케의 『말테의 수기』 -

자연과학부 2002-10974 유남경

『말테의 수기』는 다른 소설처럼 즐거이나 사건이 뚜렷하지 않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요약, 정리된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 예로써 나타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자가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 존재’가 여러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엮어서 해석하려고 한다.

이 책의 화자 말테는 역사 속에서 개인과 사물 하나하나가 대부분 ‘개념’으로 규정되어 그 본질이 가려져 왔다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근대에 와서 기계 문명과 경쟁 분위기 등에 의해 개별적 존재들이 더욱 억압받고 있음을 관찰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반성과 동시에 저자의 이상향이 중간 중간에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존재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가치를 지님으로써 만들어지는 조화이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로는 말이다. 여기서 이 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말테에 의하면 ‘말이란 모든 것을 그르칠 따름이다’. 이 글은 책의 내용을 임의로 분해하고 분석해버린 결과인지도 모른다. 평소에 내가 사고해온 한계 이상의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러므로 릴케가 사용한 수많은 은유적, 비유적인 언어의 숨은 뜻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만일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면)를 그르칠 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면 확실한 것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릴케가 확실하다고 여겨 적은 내용을 쓰려고 한다.)

목차

‘커다란 것’의 의미 - 죽음?

인식의 한계 - 개별자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몰이해는 존재를 억압한다

자아와 개별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인물들

새로운 구속 그리고 내던져진 자
특별한 개별자들이 이루는 조화
사랑 - 그 나아가는 특성
진실을 향한 릴케의 의지

‘커다란 것’의 의미 - 죽음?

말테는 어린 시절 열병을 앓다가 공포를 경험했다. 이 병은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든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흔히 병이라고 할 때 말하는 것들과는 다른 것이다. 정체불명을 알 수 없는 어떤 ‘커다란 것’이 말테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인데 그것은 의학으로 증명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어른이 된 말테가 같은 병에 걸리게 되어 병원에 갔을 때에도 의사들은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 ‘커다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풀어야 할 주요 문제 중 하나였다.

여기에 ‘커다란 것’의 특성이 나와 있다. 먼저, 그것은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내면의 종양이다.

‘그 커다란 것은 이제 내 안에서 마치 종양처럼, 두 번째 머리처럼 자라 올랐다. 그것은 너무 커서 내 몸의 일부분이 될 수 없는데도 나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죽어버린 커다란 동물처럼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살아 있었을 때 내 손이나 팔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내 피는 내 몸과 그리고 그 커다란 것의 속을 하나의 몸속을 흐르듯 흘렀다. 그런데 내 심장은 그 커다란 것에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피가 충분하지 못했다. 내 피는 그 커다란 것 안으로 들어가기에 꺼려했고 들어갔다가는 병들고 더러워져서 돌아왔다. 커다란 것은 부풀어 올라서는 푸른색의 따뜻한 혹처럼 커지고 마침내 입 근처까지 자라서는 어느새 내 눈 위에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핏줄처럼 사소한 일들을 통해 내 안에서 자라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라난 그것과 마주치고 느끼게 된 때에 사람은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아직 미약하나마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혈관이나 약간 둔감한 기관의 점액 속에서가 아니라 실핏줄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수없이 갈라져서 가지를 이룬 실핏줄 끝까지 관처럼 빨려 들어가 거기에서 부풀기 시작하여 당신을 넘어서고, 당신이 최후의 장소라 생각하고 도망쳐 들어간 당신의 호흡마저도 압도해버린다. ... 당신은 당신 바깥으로 나와 버려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 당신의 껍질이 조금 단단하거나 탄력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커다란 것’의 특성과 죽음에 대한 말테의 견해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말테는 죽음이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품기 시작하여 살면서 자기 안에 키워온 열매라고 말한다. 할아버지인 시종관 브리계의 요란스러운 죽음은 그가 키워온 고유한 죽음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죽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죽음까지도 인간 존재의 일부로 보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커다란 것’도 우리 안에 원래부터 존재한 고유한 것이라는 점에서 죽음과 비슷하다.

생명은 태어남과 동시에 ‘삶’을 시작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그래서 말테는 ‘죽음’과 ‘생명’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한 게 아닐까.) 죽음은 곧 물질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이러한 필연적 운명은 존재의 가치에 큰 타격을 준다. 길에서 본 사람들의 죽음, 개의 죽음, 파리의 죽음 이러한 것들이 말테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 즉 ‘커다란 것’과의 대면은 인간에게 고통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죽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또 다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면하는 것은 과거의 추억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경험하게 하며 몰랐던 자신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특성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병은 각각의 사람들에게서 이미 오래 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던 가장 깊은 위험을 몽유병처럼 확실하게 꼬집어내서는 그들의 코앞에다 다시금 생생하게 펼쳐놓는다. ... 전혀 경험해보지도 않은 삶이 솟아올라서는 실제의 삶 속에 섞여들고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과거를 밀쳐버린다. 새롭게 떠오르는 것 속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새로운 힘이 들어있는 데 비해 언제나 거기에 있었던 삶은 너무 자주 떠올려서 이제는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나는 이 모두가 너무나 강하긴 하지만 어떻든 우리의 힘이라고 믿게 되었다. 우리가 그 힘을 모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아주 조금밖에 모른다고 해도

어떻든 그것은 우리가 지닌 가장 고유한 것이 아닌가? 나는 종종 천국과 죽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본다. 아마도 먼저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많고, 바쁘기만 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 곁에 놓아두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한테서 멀리 떼어놓은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이제 사소한 것들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우리 자신의 것이었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의 엄청난 크기에 그만 놀라버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른 곳에서 말테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고 그럴수록 계속 낮선 자신, 더 깊은 심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커다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바라봄으로써 진실된 자신의 내면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테는 그것이 수반하는 공포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렸을 때 나도 ‘죽음’에 대한 공포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자신의 존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그 낮선 느낌 때문에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것 같고 등줄기가 오싹한 공포를 경험했다. 나는 그 때문에 열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아무리든한 사람도 이러한 공포를 한 순간이나마 경험해보았으리라. 죽음은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며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또한 누구에게나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식의 한계 - 개별자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인간은 대상에 대해 주관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 말테가 어린 시절 머물렀던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조각조각 분해되어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집의 본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이것을 말테는 ‘집이 마음의 바닥에서 부서졌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나 개념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사람들은 대상의 특성들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그리하여 ‘개념’, ‘의미’ 등을 창출해내고 이것이 올바르고 확실한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보통 ‘여인들’, ‘아이들’, ‘소년들’이라는 복수형 개념만을 말하고 거기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거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경험과 죽음을 가진 존재이고 개

별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이 정해놓은 의미에서 이탈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또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의미를 규정해 버리고 그 틀에 맞지 않는 것은 부정하려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고 떠올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등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말테가 어린 시절 겪었던 열병과 ‘커다란 것’을 파리에서 재발하기 전까지 잊고 있었던 것은 공동의 삶을 통해 배운 의미들과 이성의 발달로 죽음과 불안에 대해서 잊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위와 같이 인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뿐 아니라 대상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가 말테의 외할머니이다. 말테에 의하면 그녀는 차갑고 금속적인 껍질을 가지고 있다. 식탁에 묻은 얼룩을 보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화를 낸다. 그러나 그러한 할머니도 가끔 사래가 들려서 감추고 있던 껍질 속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외할아버지도 한번은 할머니의 뜻에 반항하여 포도주를 테이블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딸도 그녀보다 먼저 죽게 되는 등 현실은 종종 그녀의 뜻에 빗나간다.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말년에 세계와 자신을 격리시켜 버리고 만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안주하던 의미로부터의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 즉, ‘마음에 들어하는 의미’의 커튼으로 가리지 않은 개별자의 변화무쌍함과 낯선 모습들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말테는 길에서 얼굴을 벗은 여자 손 위에 있는 얼굴 뒷면(본질)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또한 앞서 말한 ‘커다란 것’과의 대면도 열병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음으로써 의자와 하나가 된 것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의자에서 내려오는 것, 즉,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의미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힘들었다. 그리고 책상 밑에서 말테가 본 것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낯선 손이었다. 그 손을 보았을 때의 공포는 알지 못했던 낯선 자아를 만났을 때의 공포와 비슷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 공포가 이렇게 크지만 앓다면 모든 것을 다르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앓다고 자신을 위로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두렵다. 이 변화가 말할 수 없이 두렵다. 멋지게 보이는 이 세상에 나는 아직 전혀 익숙해지지도 못했지 않은가. 그러니 다른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마음에 드는 의미들 사이에 나는 기꺼이 머물고 싶다. 만일 무언가 정히 변해야만 한다면 적어도 개들 사이에서라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친숙한 세계와 지

금과 같은 물건이 있는 개들 사이에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결국 말테는 인간의 자의적 분류로 인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것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예를 들어 삶에 있어서 질병, 입김, 겨드랑이의 땀, 입냄새 등은 중요하지 않은 것,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다. 말테는 부서져가는 집에서 어떤 의미 있어 보이는 삶에도 존재할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벽과 바닥과 창문에 남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 그리하여 본질과 관련 없이 대상에 인간이 부여한 의미, 개념, 인상이 개별자들을 억압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몰이해는 존재를 억압한다

그는 경련을 일으키는 자를 보았다. 길을 걸어가는 그 남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련과 싸우며 이를 숨기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정상적인 인간’ 상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고 구경거리로 삼는다. 그는 ‘낯선 손’의 경험 후에 사람들이 이런 은밀한 경험들을 속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걸 어렵פות이 깨닫기도 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숨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비밀, 남에게 보이지 부끄러운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비밀이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취급받고 소외받을 수도 있다. 물론 어떤 때는 지나친 자의식에 기인한 쓸데없는 걱정으로 판명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자신이 규정한 ‘정상’이라는 의미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행동 양식, 역할 등 자기에게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말테가 말한 ‘가면’, ‘옷’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의 자기 인식은 고유의 본질과는 상관 없이 표면적인 가면에 멈춰 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하여 가면을 바꾸어 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면이 어떻게 사람들을 억누르는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어린 말테가 가면, 망토 등을 입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멋진 모습에 감탄하며 놀다가 천이 영키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는 대목이다. 그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럴수록 그 천은 온몸을 감고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 어린이는 결국 울고 만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덧씌운 ‘의미’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말테는 사람에 대한 소유욕과 이에 따른 의미 규정을 ‘대상을 불태워버리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에 대해 기대하고 예찬하는 행위가 자신의 기준과 필요에 의한 것일 때 이미 대상은 사랑

하는 자가 믿는 의미 속에 갇힌 것이다. 이는 사랑하는 자의 ‘탐욕’일 뿐이다. 탐욕에 찬 사랑을 받다가 버림받은 여인은 마치 가득 차 있던 보석이 사라져 버린 텅 빈 보석함과도 같다고 비유한다. 즉, 대상의 본질을 속속들이 비춰주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런 사랑의 대상은 사랑하는 자의 의미로 구속되어 자신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인 것이다.

명성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로다. 입센의 작품은 전체로 이해되지 않고 조각조각 이해되었다. 사람들은 ‘입센의 말을, 그 무서운 맹수들을 어두운 우리로 유인해서 광장에 전시해놓고는 안심해 버렸다.’ 이것 또한 명성과 사람들의 피상적인 관심이 본질을 불태워버린 예인 것이다.

자아와 개별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인물들

이제 『말테의 수기』에서 자아의 해방과 개별자를 사랑한 인물들 몇을 살펴보겠다. 먼저 말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잠시 비교해 보려고 한다. 말테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수렵관이라는 찬사를 듣는 사람이었다. 매사에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며 신앙심이 깊었다.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말테의 할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맡겼지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도 몰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식탁에서 큰소리로 웃는가 하면,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다지 예의가 바르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말테와 함께 보석함의 레이스에 대해 감탄하며 레이스 짠 사람의 정성과 영혼을 생각하기도 했다. 또한 잉에보르크에 대해 ‘금발이다’, ‘소녀이다’ 등의 보편적인 말 외에 그녀를 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테에게 들려주었다.

외할아버지인 브라에 백작도 그러했다. 그는 아벨로네에게 벨마레 후작에 대해 회고하면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즉, 브라에 백작과 말테의 어머니는 개별적 존재들의 호흡을 느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벨마레 후작과 뒤에 나오는 엘레오노라 두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엘레오노라 두제는 연극 배우로서 관객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탐욕의 눈을 뿌리치고 자신만의 연극을 했다. 연극 배우라는 직업을 이용해 그녀가 진실에 다가가려 했다는 것이 말테의 주장이다. 벨마레 후작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숨긴 채 거짓으로 동물원, 식물원 등을 만들고 피상적인 삶을 살아갔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연기를 해야 했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진실에 그 본질과는 다른 의미를 자꾸 덧씌우려 하는 외부에 대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진실을 숨기고 거짓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 현실에서 진실이 온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구속 그리고 내던져진 자

말테는 병원과 요오드포름 냄새가 나는 파리의 거리에서 병자, 거지 등 내던져진 자들을 만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말테를 알아본다. 짓무른 눈을 한 노파는 지저분한 손으로 말테에게 연필을 내밀었다. 말테는 그것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신호라고 여겼고 그것이 그가 기대했던 것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간이식당에서 죽어가는 남자 옆에서 그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도 한다. 내던져진 자들은 그를 알아보고 눈을 껌벅거리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내던져진 자들이라 함은 ‘소시민, 직공, 하녀, 짐마차꾼 같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테는 말하고 있다. 즉, 사회에서 높은 낮은 어떤 직업과 지위를 차지하고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중요치 않게 생각되는 사회 변방의 사람들이다. 가면이 닳고 닳아 더 이상 가면조차 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말테는 내던져지기를 자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탕아의 전설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피해 떠난 탕아가 외지에서 돈을 다 써버리고 난 후 겪었던 고통스럽고 고독한 시절과 말테의 현재가 동일시되고 있다. 사랑과 그에 따른 기대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철저한 고독의 상태를 말테는 원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든 노파가 연필을 내밀었을 때 그가 기대했던 장면이었다고 느낀 것이다. 그들이 그를 알아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내던져짐’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불안 때문에 유난히 내던져진 사람들이 말테의 눈에 띄었는지도 모른다.

사랑과 정해진 틀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긍정적인 ‘내던져짐’의 모습이라면,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육체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종류의 비참한 ‘내던져진 자들’이다. 근현대의 자본주의 기계 문명에서 이렇게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그는 본 것이다. 이것은 개념화된 것 이외의 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보다도 개개인에게 더 큰 위협으로 보였다.

가치가 하락한 것은 내던져진 자들만이 아니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이 분업화되고 기계의 힘이 커졌으며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별자들은 마치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공장 기계의 부품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예전에 입던 ‘옷’, ‘가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혈령한 ‘의미’였으나 이제 이 ‘옷’들은 사회가 획일적, 강제적으로 입힌 답답하고 옥죄는 ‘의미’이다. 앞으로 뛰어가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으며 오직 무리의 행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바쁘고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우리들 개개인의 나약함을 느낀다. 또한 사회가 부여한 나의 임무와 규율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고유의 삶을 살아가다는 것이 큰 용기와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말테가 말한 ‘옥죄다’는 기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테는 도시의 병원에서 사람들의 죽음이 대량 생산된다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자신이 품어온 고유의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옥죄는 기성품 같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에 의해 밝혀진 질병에 대해 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졌다. 그저 주어진 죽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말테에게 있어 존재와 직결된 문제인 죽음의 가치가 상품화되면서 존재 또한 별것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죽어가는 사람들, 자동차와 전차 소리, 밤의 적막과 고독 등 도시의 불안은 말테로 하여금 마침내 어릴 때 겪었던 열병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내부에는 공간이 거의 없다. 당신 내부의 그 비좁은 공간에는 아주 커다란 것이 머물 수 없기에, 그 무서운 것도 당신의 내부로 들어오려면 상황에 맞추어 작아져야 한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외부에는, 외부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 그 무서운 것이 밖에서 자라나게 되면 당신의 내부도 공포로 가득 차게 된다.’

여기서 나는 외부에서 자라는 ‘커다란 것’이 오늘날의 기계 문명, 인간 소외 현상 등이 개인의 존재를 나약하고 왜소하게 만드는 현상과 관련 있다고 해석했다. 개인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데 또 하나의 거대한 위협이 닥친 것이다. 그리고 그 외부의 ‘커다란 것’이 자라는 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존재는 더욱 위협해졌다는 것이다.

특별한 개별자들이 이루는 조화

여기서는 위와 같은 말테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말테가 소망하는 세계상을 엮어보았다.

말테가 머무르고 싶어 하는 장면의 공통점은 ‘조화’였다. 그것은 개별자가 조화를 위해 존재하여 전체를 이룬다기보다는 개별자의 무한한 다양성과 특별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었다.

햇살에 의해 비춰지는 꽃과 동상들, 이런 존재들 하나하나에 미소를 짓고 추억에 젖어 걸어가는 남자. 현책방 책상자의 ‘모두가 잘 어울리고 각자 의미를 지니며, 서로를 보완해주어서 무엇 하나 빠진 것 없는 완전함’. 여인과 오르간과 춤추는 아이. 아무 근심 없이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으며 성공하려고 초조해하지도 않는, 친숙한 개와 함께 있는 작은 상점주인. 완전한 세계를 그리고 있

는, 조화의 극치인 베토벤의 음악. 이런 것들이 그의 바람이다. 개별자 하나하나의 본질이 햇살로 비취지듯 비취지고 그 소중함이 인정되는 세계, 잔잔하게 그 모든 색채가 조화를 이룬 그림과도 같은 세계가 바로 그가 원하는 세계인 듯하다.

사랑 - 그 나아가는 특성

그 외에도, 그는 몇몇 여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남자들은 그동안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탐욕과 소유욕을 채우고 그 존재를 짓밟아왔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남자들은 여인들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 남자들도 그런 여인들의 사랑을 배우자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대방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언어로 된 사랑은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사랑을 개별적인 것의 존재와 본질이 무시되는 현실에서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존재하는 조화로운 세계로 엮힐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가 ‘사랑’을 언급할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다’는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니, 당시는 오직 당신을 필요로 하는 부름을 듣고 그 무서운 것을 앞질러 오신 것입니다. 다가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앞질러 오신 당신의 등 뒤에는 오로지 서둘러 달려온 길, 영원한 길, 당신의 사랑이 날아온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자신을 버린 남자를 급히 뒤쫓는다. 그러나 벌써 첫 걸음에서 그를 추월해버린다. 이제 사랑하는 여인들 앞에는 신만이 있을 뿐이다.’

이 외에도 새에게 모이를 주는 여인들은 동상처럼 가만히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모이를 주는 남자와는 달리 걸어가면서 모이를 준다는 대비도 나와 있다.

사랑은 신이 창조한 존재의 비밀(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진보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 아닐까. 즉, 말테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은 대상의 숭고한 본질을 낱알이 비추고 특별하게 해준다. 그러나 신은 아직 인간을 사랑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간 인식의 한계를 넘어 본질에 이르는 것은 아직 머나먼 길, 어쩌면 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진실을 향한 릴케의 의지

개별적인 존재들 하나하나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의미로 묶는 것은 무의미하고 개별 존재들에 대한 구속과 폭력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표면에만 머물러 왔다. 그렇게 개별자들의 존재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말테, 즉 릴케는 환멸에 떨지 않고 직시하였다. 그는 고독과 공포를 극복하며 계속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글쓰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 이러한 불안한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금까지 지나쳐버린 일을 되잡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설령 그가 그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다른 사람이라고는 없다. 그래서 이 젊고 보잘것없는 외국인인 브리게가 5층 꼭대기에 앉아서 밤낮으로 써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평) 릴케의 『말테의 수기』는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작품들 가운데 하나다. 뚜렷한 줄거리가 없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알기 쉬운 소설만 읽던 학생들로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이 리포트는 릴케 소설의 다소 난해하고 다양한 내용을 “개별적 존재에 대한 관심”이라는 핵심적 주제로 묶어내고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말테의 수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로, 문학작품에 대한 서평의 모범적 사례라고 할 만하다.